

# 박민영의 눈물 “죽기 살기로 했다”

tvN '내 남편과 결혼해줘'로 복귀  
옛애인 구설 1년만 “신인의 마음”  
암투병 환자 역 37kg까지 감량  
인생 2회차서 불륜 남편·질전에 복수  
“실수 되돌리려는 의지·독기 닦아”



배우 박민영(37)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tvN 월화극 '내 남편과 결혼해줘'가 인기 몰이 했지만, 사생활 논란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다. 2022년 9월 가상화폐 거래소 빚쟁이 소송유주로 알려진 강중현(41)씨와 열애설로 구설에 오른 후 1년 여 만의 복귀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이라고 생각한 적도 많다”고 털어놨다. 아직도 여러 의혹을 받고 있지만, 본업 복귀 후 연기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다. “신인의 마음”이라며 “배우 박민영으로서 시간을 보낼 때 가장 행복하다.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 작품은... (눈물) 사실 가장 최악일 때 만났다. 제작사 DK E&M 김동주 대표님이 많이 기다려줬는데, (사생활 구설로) 못할 것 같아서 고사하려고 했다. 김 대표님과 손자영 CP, 신유담 작가님이 ‘박민영 아니면 안된다’ 이럴 때일수록 연기자로서 더 보여 주면 좋겠다’고 조언해주었다. 나를 지켜준 분들께 한 번 실망을 끼쳤으니,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보여주고 싶었다. 내 자신을 뛰어넘고 싶었다. 인간 박민영은 조금 실수해 스크래치가 났지만, 20년간 연기한 박민영은 땀땀하다. 그래서 더 죽기 살기로 했다.”

이 드라마는 남편 ‘박민환’(이이경)과 절친 ‘정수민’(송하윤) 불륜을 목격하고 살해당한 ‘강지원’(박민영)이 10년 전으로 회귀, 인생 2회 차에 복수하는 이야기다. 동명 웹소설이 원작이다. 1회 5.2%(닐슨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로 시작, 16회 11.9%로 막을 내렸다. 극 초반 암투병하는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37kg까지 감량했다. 이윤음료로 버텼다며 “내 몸을 조금은 망가뜨리면서

연기하니 지원의 감정에 조금 가까워졌다”고 돌아봤다.

“민환과 수민의 침대에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힘이 없었다. 단전에서 소리를 끌어내도 쇠소리밖에 나지 않았다. 미친 것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데시벨이 안 올라갔다”며 “37kg까지 뺀 뒤 전날에는 이윤음료도 마시지 않아서 힘이 없었다. 소리를 한 번 지르면 이명이 생겨서 쓰러질 뻔했다”고 회상했다. “수중 촬영도 직접 했다. 숨이 막까지 잘 정도로 연기해 똥 깊다”며 “이 작품의 성공 여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에서 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드라마는 로맨스물에 막장 요소를 버무려 재미를 더했다. 박민영도 “이렇게 자극적인 드라마는 처음”이라고 할 정도다. 지원을 연기하며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진 않았을까. “지원과 내가 그렇게 많이 닮지는 않았다”면서도 “비슷한 건 있더라. 한번의 실수를 되돌리겠다는 의지와 ‘균건하게 살아야겠다’는 독기가 있다”고 귀띔했다. 후반부로 갈수록 ‘고구마맛 사이다’라는 평을 받은 데는 “좀 더 통쾌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는 지원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했다”고 짚었다.

“(민환과 수민의) 상견례에서 독수리 옷을 입고 갱판을 질 때 가장 희열을 느꼈다. ‘독기’의 끝판왕이었다. 극본에 페이크피와 망사스타킹, 스모키메이크업이라고 써 있어서 가능할까 싶었다”며 “앞머리까지 했는데, (털이 들어가서) 코를 풀면 까맣게 나올 정도로 열심히 했다. 1회차 인생 때 지원의 굴욕과 실움이 날라가지 않았나 싶다. 지원 입장에서 시원했다”고 털어놨다.

지원의 오피스룩은 화제와 논란 사이에 있었다. 무엇보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2018)와 비슷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다. 10년간 함께 일한 스타일리스트를 바꿨지만,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9월부터 원래 팀으로 돌아갔다. “오피스 관련 세 작품을 하다 보니 더 이상 새로운 룩이 나올 것 같지 않았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 웹툰을 보면 김비서와 그림체가 닮았다. 머리스타일, 액세서리, 스타일링 등이 비슷해 ‘김비서 같다’는 말이 나올 것 같았다”며 “인생에 박박을 찼다고 생각했을 때 나도 변신하고 싶더라.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사는 느낌이 들 것 같았다”고 해명했다.

동창회에서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는 신 관련에선 “극본에 메이크업하고 드레스업한다고 명시 돼 있었다”면서도 “내가 조금 과한 것 같다. 살을 다시 찌우지 못한 상태여서 머리와 옷을 좀 더 과감하게 해야 할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중간에 변신의 시도가 드라마적 허용에 조금 벗어난 지점이 있었다”면서도 “아차피 판타지라서 확실하게 달라지고 싶어 의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쪽 어깨가 파인 정장룩을 ‘예방주사 룩’이라고 하더라. 몇 작정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신이 길더라. 나도 보면서 천을 붙여주고 싶었다. 내가 너무 고중에 매달려서 2013년 패션 아이템에 집중했는데, 오프쇼더가 첫 번째로 땀. 소통의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했다.

회귀 후 재벌3세 ‘유지혁’(나인우)의 로맨스 케미스트리가 잘 살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나인우씨가 로맨스를 찍은 경력이 별로 없더라. 내가 의견을 많이 낸 편”이라며 “초반에 대학생까지 딱 좋았는데, 로맨스 서사가 조금 더 촘촘했다면 힘을 얻지 않았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중·후반부로 갈수록 빌런 민환·수민 커플 활약이 돋보였는데,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알고 있었다. 어쨌든 악의 기운과 선한 기운이 맞붙으면 빌런이 시선이 더 가지 않느냐. 초반에 지원의 1인칭 시점에서 몰입해 시청자를 고정 시킨 다음에 빌런이 나타나야 더 시원한 사이다가 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만, 16부는 조금 길다”고 생각했다. 12~13부였다면 더 깨끗한 결말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내 욕심 같다”며 “어찌 됐든 사이다가를 위한 빌드업이 필요한데, 그걸 내가 맡았고 충실히 이행해 아쉽지는 않다”고 했다.

첫사랑 ‘백은호’(이기광)와 사투리 연기도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박원국 PD님이 부산 토박이다. 이기광씨는 사투리 선생님이었다고. 난 부산 출신인 유희연(최규리)씨한테 배웠다. 근데 논란이 일어나는 걸 보고 물어보니 경상도에서도 억양이 다르다고 하더라. 차라리 나한테 ‘러시아어를 하라고 하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사투리가 어려웠다. 수백 번 연습하고 내뱉어도 현지인처럼 안 들릴 거라고 생각했다. PD님은 80% 오케이를 줬는데, 기광씨는 조금 안타깝다. 옆에서 정말 열심히 한 걸 봤다. 사투리 신 나오면 서로 녹음이 듣고 연습했다.”

드라마 완성도는 떨어졌지만, 캐릭터를 향한 애정은 남다르다. “내 필모그래피 안에서 손꼽으려고 하면 넣을 것”이라며 “전체적인 완성도와 상관없이 강지원은 나에게 울림을 줬다. 이 캐릭터를 사랑해서 작품성과 별개로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차기작을 보고 있고, 계속 일을 해나갈 계획이다. 아직 내가 보여주지 않은 모습이 있다. 사실 몸을 잘 못 쓰는 편이 아니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좀 더 유연할 때 몸을 좀 쓰는 일을 해볼까 한다.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도전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된 자체만으로도 큰 변화다.”

## 가수 방실이, 성격 좋고 털털했던 그녀



방실이는 마음이 따뜻하고 성격이 좋았던 만큼 그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많이 도왔다. 헌당에 따르면 가수 현숙이 앞장서서 모금을 했고 가수 박상철·송대관, 배우 이동준 등도 방실이를 적극 도왔다. 2000년대 후반엔 방실이를 위해 동료 가수들이 병원에서 생일 파티를 열기도 했다.

헌당은 “소담하고 쾌활하며 주변을 항상 즐겁게 해주는 인성 많은 스타일이었”면서 “특히 호녀였다. 부모를 모시면서 집안을 일으키고 오빠, 남동생 조카까지 일일이 다 챙겼다. 그래서 오빠, 남동생이 방실이아 병원에 있는 긴 세월동안 잘 돌봐줬다”고 했다.

방실이는 “소담하고 쾌활하며 주변을 항상 즐겁게 해주는 인성 많은 스타일이었”면서 “특히 호녀였다. 부모를 모시면서 집안을 일으키고 오빠, 남동생 조카까지 일일이 다 챙겼다. 그래서 오빠, 남동생이 방실이아 병원에 있는 긴 세월동안 잘 돌봐줬다”고 했다.

방실이는 “소담하고 쾌활하며 주변을 항상 즐겁게 해주는 인성 많은 스타일이었”면서 “특히 호녀였다. 부모를 모시면서 집안을 일으키고 오빠, 남동생 조카까지 일일이 다 챙겼다. 그래서 오빠, 남동생이 방실이아 병원에 있는 긴 세월동안 잘 돌봐줬다”고 했다.

방실이는 “소담하고 쾌활하며 주변을 항상 즐겁게 해주는 인성 많은 스타일이었”면서 “특히 호녀였다. 부모를 모시면서 집안을 일으키고 오빠, 남동생 조카까지 일일이 다 챙겼다. 그래서 오빠, 남동생이 방실이아 병원에 있는 긴 세월동안 잘 돌봐줬다”고 했다.

## 아이유, ‘더 위닝’ 아이튠즈 15개 지역 1위

톱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이지은)가 미니 6집 ‘더 위닝’으로 국내외 음원 플랫폼을 휩쓸고 있다.

21일 소속사 이담(EDAM)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유가 전날 오후 6시 발매한 ‘더 위닝’ 수록곡이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의 톱(TOP) 100·핫(HOT) 100 포함 지니·벅스 등 주요 실시간 음원차트 1위와 상위권을 장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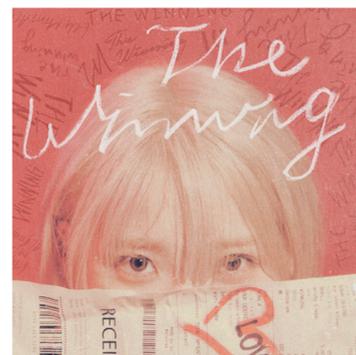
특히 ‘더 위닝’ 선공개곡인 ‘러브 윈스 올’은 멜론 톱 100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쇼퍼’와 ‘홀씨’ 더블 타이틀곡은 물론 수록곡인 ‘쉬(Shh)’와 ‘관객이 될게(I stan U)’ 모두 상위권에 안착했다.

‘더 위닝’은 글로벌 음원차트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아이튠즈 톱 앨범차트(이날 기준)에서 브라질, 덴마크, 홍콩,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마카오,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멕시코, 몽골, 필리핀, 카타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등 15개 지역에서 1위를 기록했다.

더불어 발매 직후 글로벌 소셜 미디어 ‘엑스(X)’에선 실시간 트렌드에 ‘아이유애나’, 대한민국 트렌드에서 ‘아이유 신곡’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유튜브 인기 급상승 음악 섹션 역시 ‘홀씨’가 1위에 올랐고 ‘쇼퍼’가 상위권에 새롭게 안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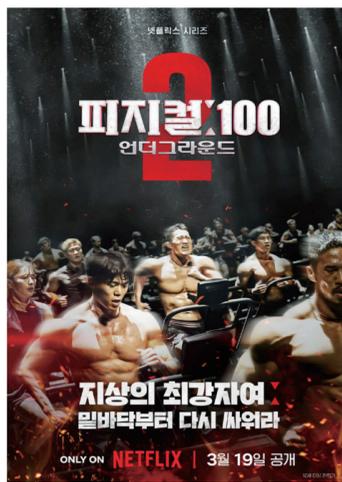
이번 앨범은 아이유가 ‘조각집’(2022) 이후



약 2년2개월 만에 발매한 것이다. 아이유가 프로듀서로서 오랜 시간 진두지휘했다. 더블 타이틀곡은 ‘러브’, ‘스물셋’, ‘베베’, ‘스트로베리 문’ 등을 작업한 이종훈 작곡가·이재규 작곡가가 다시 뭉쳤다. 아이유는 다섯 곡 모두에 작사에 참여했다. ‘쉬...’는 뉴진스 해인·조원선이 피쳐링했고 ‘영원한 디바’ 패티김이 스페셜 내레이터로 참여했다.

한편, 아이유는 오는 3월 2~3일, 9~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KSPO DOME)에서 ‘2024 아이유 허 월드 투어 콘서트 IN 서울(IU H.E.R. World Tour Concert IN SEOUL)’을 이어간다. 세계 18개 도시를 방문한다.

## 내달 19일 공개 ‘피지컬 100’ 시즌2



넷플릭스 ‘피지컬: 100’ 시즌2가 새로운 세계관을 내세운다.

‘피지컬: 100 시즌2 - 언더그라운드’는 희생과 욕망, 협동과 경쟁의 경계가 모호한 지하 공간 배틀로 돌아간다. 전·현직 국가대표 비공인 30%에 달해 국제 스포츠 경기를 방불케 할 전망이다. FBI 외교관부터 종합격투기 선수, 마살아츠 트릭커, 경찰, 군인, 배우, 아이돌 가수 등이 맞붙는다.

피지컬: 100은 가장 완벽한 몸을 찾기 위해 100명이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이다. 시즌2 티저 포스터 속 이종혁기선수 김동현이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한국인 최초 UFC 진출자이자 한국인 최다승 보유자다. 유도 국가대표 이원희와 레슬링 국가대표 정지현 등도 엿보였다. ‘지상의 최강자여 밀바닥부터 다시 싸워라’라는 문구가 기대감을 높였다.

다음 달 19일 공개.

## 그룹 비투비, 이름 계속 쓴다...‘비투비 컴퍼니’ 설립

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와 상표권 합의

그룹 ‘비투비(BTOB)’가 자신들의 이름을 지켰다. 21일 종합 엔터테인먼트사 DOD는 ‘비투비 멤버 서은광·이민혁·임현식·프리엘을 위한 레이블 ‘비투비 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투비를 발굴한 큐브엔터테인먼트와 상표권 사용에 대한 합의를 완료했다고 전

했다.

서은광·이민혁·임현식·프리엘은 비투비 컴퍼니, 이창섭은 판타지오, 그리고 육성재는 아이돌미디어에서 개별 활동을 한다. 완전체 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그룹 활동은 비투비 컴퍼니에서 지원할 전망이다.

